

원래 치아와 똑같은 수 없을까?

‘임플란트’로 해결하세요

최근 치아가 빠졌거나 틀니를 쓰는 사람에게 턱뼈에 작은 구멍을 뚫고 티타늄으로 된 나사 모양의 치근을 심은 후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이 보편화되고 있다.

인공치아 이식술의 수술기법은 물론 재료의 발달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자연치아의 가장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개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플란트란

통상적으로 1-2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사용하는 고정성 보철물은 건전한 치아를 깎아 지지대로 삼기 때문에 자연치아의 수명을 단축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임플란트 보철은 불필요한 치아의 삭제를 피할 수 있고 가철성의 치를 고정성으로 대처하거나 지지력을 향상시킨다.

또 교합력을 증대시켜 음식을 씹는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지지하는 잇몸에는 교합력의 전달을 덜어줘 향후 치조골의 흡수도 방지할 수 있다.

틀니 등으로 음식을 씹는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인공치아(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이 통상적인 치아수술식으로 권장될 수 있다.

인공치아는 턱뼈에 해가 없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나사 형태 치근으로 수술을 통해 악골 내에 위치시켜서 4-6개월의 치유과정을 통해 외부의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잇몸을 덮어둔다.

이후 2차적인 수술을 통해 기둥을 부착시킨 후 가공치아를 제작한다.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러한 수술방식을 적용하면 진료비가 비싼 단점과 상하와의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일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제한성이 있다.

하지만 자연치아에 버금가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 성공률 또한 높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연장과 함께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수술과정

시술방법과 재료 발달로 숙련된 의사의 경우 1개 심는데 수술시간이 10분이 내로 짧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술부작용도 거의 없다.

또 인공치아 이식이나 보철물 장착 후 실패 가능성과 실패가 예견될 때에도 다양한 치료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비용은 개당 180만~400만원까지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한누리치과병원 이철우 원장

<약력>

서울대 치의학 박사

울지대치과병원장, 임플란트센터소장

서울치대 임상외래교수

대한치과 이식학회 공보이사

미국 치주·임플란트학회
active member

스위스 바젤지과대학 교환교수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위원

임플란트 시술의 종류

구분	부분틀니	전체틀니	임플란트	뚝딱이틀니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비싸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절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씹는 힘이 정상인의 15% 수준이며 고정되지 않는다. • 부분틀니는 신경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씹는 힘이 강하다 • 틀니의 여러 불편함이 없다. 	씹는 힘이 60~70%선에 이른다
비용	위턱과 아래턱 100만~200만원 가량		치아 개당 180만~400만원	틀니+임플란트 갯수(임플란트에 비해 인공치아 갯수를 줄일 수 있다)
기간	3주 이상	2~3주	위턱 5~7개월 정도, 아래턱 3~4개월 정도	

또 여러 개를 심는 것이 부담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술받거나 최소 갯수의 임플란트와 정밀유지장치, 지석 등을 이용한 가철성 보철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임플란트 시술 때 꼭 생각해야 할 것으로는 첫째로 환자의 상태이다.

남아 있는 치조골의 양, 턱뼈 신경, 턱뼈 구조와 골질 형태, 전신질환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임플란트 수술시 적합한 골이식과 골질 강화 등 다양한 수술방법과 고려해야 할 환자의 전신질환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의 능력을 들 수 있다.

셋째는 보철물 장착 후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골유착이 이뤄졌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최종보철물을 장착하나, 골질이 안 좋고 보철물 형태가 복잡한 경우, 환자가 치주질환이 심했던 경우 최종보철물과 함께 플라스틱제제의 임시보철물을 만들어 충분한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치아 사용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치아의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을 들 수 있다.

이는 임플란트 치아에 신경이 없으므로 아주 나빠지기 전에는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X선 촬영 등 정밀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초기 임플란트 주위염 증은 악물이나 특수기구를 이용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깨끗이 함으로써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면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나 염증이 너무 진행돼 광범위한 골괴괴와 염증이 계속될 때에는 수술을 통한 회복치료와 보철물의 디자인 변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듯 보다 정교해지고 발달된 시술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과거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었던 환자도 시술이 가능해졌으며 인공치아 재료가 꾸준히 발달해 자연치아와 비슷한 기능적·심미적 대체 치아로 인식되고 있다.

문의처 : 한누리치과 02-753-1925 